

하나님의 선택 기준

성경말씀: 삼상16:1-13

성경은 살아 있는 책: 여러 종류의 '두 사람'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며 여러 가지를 보여 준다.
가인과 아벨: 주님을 섬기는 것(종교와 복음)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브니엘의 체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일)

사울과 다윗: 하나님의 지도자

지도자의 중요성: 하나님은 교회와 민족을 이끄시며 반드시 지도자를 통해 일하신다.

사울: 400년 이집트 종살이, 400년 재판관 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처럼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다(삼상9:2).

시작은 겸손해서 좋았다. 교만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려 했다(삼상13장). 블레셋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였다(삼상15장). 아말렉, 아각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국을 물려주려 하였다. 교회 세습, 국가 세습(이복)

그의 왕국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이 돌아간다는 것을 몰랐다(단4).

사울의 타락으로 인해 사무엘은 죽은 자를 위해 하듯 애곡하였다(삼상15:35).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 유다의 작은 고을, 유명한 곳

야곱이 베델로 갈 때에 라헬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창35:16-20).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룯의 고향, 보아스,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룯4:13-22)

다윗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겼으므로 유명하게 됨.

예수님이 거기서 나옴, 빵의 집

사무엘이 베냐민의 라마에서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사울의 도시 기브아를 지나야 하므로 쉽지 않았다. 그래서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하여 경계심을 풀었다. 그리고는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었다.

사무엘의 지도자 선택 기준: 외모(6-7절)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직업, 학교, 배우자, 교회, 목사, 집, 지역 등을 선택해야 한다. 삶은 선택의 연속 과정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가? ★★★ 일관된 원칙이 있는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은 엘리압, 막내는 다윗

두 딸이 있었다: 스루야(요압, 아비새, 아시헬)와 아비가일(아마사)

엘리압이 오자 사무엘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6절)

사울을 보고 사무엘은 이미 실수를 했다(삼상9:2). 그런데 또 그런 실수를 한다.

아마도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런 상태였을지 모른다(삼상8:1-3). 뇌물 수수, 부정한 재판
일곱 아들이 지나갔다. 모두 아니었다.

사람들의 선택 기준(겉모습): 사회적 위치, 좋은 집안, 재물, 외모

다윗, 사회적 위치: 베들레헴 촌 동네의 별 볼일 없는 사람의 막내아들

나이: 막내,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준을 버리고 막내를 택한다.

외모: 키가 작은 자를 택한다.

투표를 했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시78:70-71).

사울과 삼손, 다윗의 형제들: 대단한 영웅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다윗: 막내, 들에서 양을 지키느라 희생물을 드리는 데도 오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아예 그를 데려오려 하지도 않았다.

겉모습은 종종 우리를 오판으로 인도한다.

사람의 통찰력은 완전하지 못하므로 여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사무엘도 넘어갔다. 약2:1-4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후5:7). ★★★

교회 문제만 믿음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가?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가? 사무엘의 실수를 우리도 범하지 않는가? ★★★

하나님의 지도자 선택 기준: 마음(7절)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시51:10(깨끗한 마음), 17(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마음이 문제다(잠3:23), 부패한 마음(렘17:9-10)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막7:20-23).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빌2:5-10), 섬기는 일꾼

시몬(행8): 사마리아의 마법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20-22).

사울에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다.

에서에게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려는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은 다 마음이 바른 사람이다. 연한 사람, 상한 사람
사람은 힘 센 자,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양 치는 자를 원한다.

왜 그럴까? 양 치는 자는 자연을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 수 있다(시8:3-4). ★★★

모세를 보라. 그는 이집트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았다. “내가 하려고 하면 지도자가 안 된다.” ★★★

나와 내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

하나님은 자연스런 사람을 원한다(12절).

그는 목자의 삶을 살면서 자연스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울처럼 왕가의 옷을 입지 않았다.

지도자는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때 목사와 집사와 성도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

그에게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가족에게서 존경 받지 못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결과 그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그 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함께 하셨다(13절). 형통한 자가 되었다. ★★★

성령님의 충만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 매시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겉모습도 보신다(7절)

7절을 오용하면 안 된다. 7절은 일을 위해 사람을 선택할 때의 기준

그러면 일을 하는 동안에는 겉모습이 아무래도 되는가?

하나님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러면 왜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의 의복, 성막의 규례 등을 자세히 명하셨을까? 레27장

그냥 대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더러운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속뿐만 아니라 겉도 좋아야 한다. ★★★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 마음이 올바르면 바른 복장과 예물과 태도와 자세로 나오게 되어 있다.

복장과 태도의 기준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다. 최소한 왕을 섬기는 것 같은 자세, 최소한 결혼식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것이다.

왕상10:5-7, 세바의 여왕, 정신이 없을 정도로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함

고전14:23, 방언 문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오순절 은사주의 교회, 록 음악)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운다. ★★★

우리는 마음이 바른가?

당신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연한가, 상해 있는가? 교회 지도자는 특히 그래야 한다. ★★★

결과 속이 둘 다 좋아야 한다. ★★★

이 교회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와 태도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넘쳐나야 한다. ★★★